

I. 상담실적

- 상담기간: 2023. 11. 17.(금) 06:00 ~ 2023. 11. 19.(일) 23:00
- 상담건수¹⁾: 1,662건

II. 주요의견 내용

○ 방송 호평(5명)

-프로그램명 : 「한국인의 밥상」 ‘삭힐수록 익을수록 - 가을 발효 밥상’

-방송일시 : 2023. 11. 16.(목) 1TV (19:40-20:30)

KBS 애청자이다. 「한국인의 밥상」을 매주 챙겨보는데, 이날 정보들이 특히 마음에 들었다. 발효 식품으로 감식초, 꽃감, 막걸리 등이 소개됐는데 본인도 주문해서 먹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한국 전통 음식들을 다뤄주어 감사하다.

○ 프로그램 폐지 반대(145명)

-프로그램명 : 「더 라이브」

-방송일시 : 2019. 9. 23.~2023. 11. 9. (월-목) 2TV 방송.

해당 프로그램을 시청하기 위해 일도 빨리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정도였다. 그런데 너무 갑작스럽게 폐지되어 당황스럽다. 고정 시청자가 많으니 방송을 재개해주시 바란다.

III. 청원현황

- 신규청원
 - 42건.
- 이슈청원 및 특이사항
 - 이슈청원 : ‘더 라이브’ 폐지 반대 외 3건.

※ 참고: KBS홈페이지->시청자권익센터->시청자청원(<http://petitions.kbs.co.kr>)

1) 프로그램 별 인터넷 의견 건수는 집계에서 제외

IV. 일일 상담내용

1. 상담실적 : 총 1,662건

○ 형태별 분류

전화	인터넷	우편·FAX	방문	ARS ²⁾	계
784	359	-	-	519	1,662

○ 채널별 분류

1TV	2TV	라디오	DMB	인터넷	非채널	계
738	542	40	-	1	341	1,662

○ 내용별 분류

의견제시	단순문의	기타	계
505	1,157	-	1,662

○ 분야별 분류

방송	기술	경영	기타	계
1,250	5	101	306	1,662

시청자 의견	문 의
<p>【편 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 라이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폐지 반대 <p>【보 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 뉴스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행자 섭외 제언 <p>【시사·교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인의 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 호평 ○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 호평 ○ 「동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 호평 ○ 「일요진단 라이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자 섭외 제언 ○ 「TV쇼 진품명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자 섭외 제언 <p>【라디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낮은 목소리-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목 제언 	<p>【방 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시 내고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어탕 문의’ 연락처 문의 50건 ○ 「KBS 뉴스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행자 섭외 제언’ 45건 ○ 「더 라이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폐지 반대’ 35건 ○ 「전국노래자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행자 섭외 제언’ 34건 ○ 「2TV 생생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운도가니썰’ 연락처 문의 31건 <p>【기 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시청」 문의 3건 ○ 「주파수」 문의 2건 <p>【경 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문의 48건 ○ 「수신료」 문의 6건 ○ 「프로그램 구입」 문의 28건 ○ 「전화교환」 문의 12건 ○ 「주차」 문의 4건 외 3건 <p>【기 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전 문의사항 포함 306건

2) ARS 항목 상세내용: 제보, 홈페이지문의, 프로그램 구매문의, 출연자 및 출연업체 전화번호 안내

2. 프로그램별 의견

의견	세부내용
[편 성]	
프로그램 폐지 반대	<p>○ 「더 라이브」(145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 9. 23.~2023. 11. 9. (월-목) 2TV 방송. - 해당 프로그램을 시청하기 위해 일도 빨리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정도였다. 그런데 너무 갑작스럽게 폐지되어 당황스럽다. 고정 시청자가 많으니 방송을 재개해주기 바란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 외</p>
[보 도]	
진행자 섭외 제언	<p>○ 「KBS 뉴스 9」(30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TV (월-금) (21:00-22:00) - 이소정 앵커가 단아한 모습으로 진행을 잘해주어 그동안 9시 뉴스를 잘 시청해왔다. 그런데 갑자기 진행자가 교체되어 시청자 입장에서 당황스럽고 아쉽다. 이소정 앵커가 발음이나 전달력 등 모든 면에서 진행을 잘 해왔기에, 다시 진행을 맡아주었으면 한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 외</p>
[시사·교양]	
방송 호평	<p>○ 「한국인의 밥상」 ‘삭힐수록 익을수록 - 가을 발효 밥상’(5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 11. 16.(목) 1TV (19:40-20:30) - KBS 애청자이다. 「한국인의 밥상」을 매주 챙겨보는데, 이날 정보들이 특히 마음에 들었다. 발효 식품으로 감식초, 꽃감, 막걸리 등이 소개됐는데 본인도 주문해서 먹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한국 전통 음식들을 다뤄주어 감사하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 외</p>

의견	세부내용
방송 호평	<p>○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 ‘더 나이 들면 어디서 누구랑 살까?’(4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 11. 18.(토) 1TV (08:30-09:30) - 78세 시청자이다. 이날 ‘더 나이 들면 어디서 누구랑 살까?’라는 주제로 실버타운에 대한 이야기, 요양병원에 대한 이야기 등이 다뤄졌다. 본인도 나이가 많다보니 내용들에 공감이 됐다. 알아두면 좋은 내용과 정보를 다뤄주어 유익하고 도움 됐다. 감사하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 외</p>
방송 호평	<p>○ 「동행」 ‘산골 남매네 월동 준비’(2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 11. 18.(토) 1TV (18:00-18:55) - 산골에 사는 남매와 할아버지의 사연이 소개됐다. 방송을 시청하는 동안 마음이 너무 안 좋았다. 적은 돈이지만 출연자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한다.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방송이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 외</p>
출연자 섭외 제언	<p>○ 「일요진단 라이브」 (3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 11. 19.(일) 1TV (08:00-09:00) - 이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출연해 안보 이슈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그런데 마치 전쟁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불안감을 조성하는 발언들이 듣기 불편했다. 정부 측 인사만 섭외하지 말고, 출연자 섭외를 공정하게 해주기 바란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 외</p>

의견	세부내용
출연자 섭외 제언	<p>○ 「TV쇼 진품명품」(2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 11. 19.(일) 1TV (10:10-11:00) - 이날 개그맨들이 출연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가 담긴 의뢰품을 다루며 웃고 떠드는 모습이 보기 불편했다. 한두 번은 괜찮지만, 방송 내내 가벼운 태도를 보이는 것은 좋지 않다. 개그 프로그램이 아니므로 주의해주시기 바란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 외</p>
[라디오]	
제목 제언	<p>○ 「낮은 목소리-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 11. 17.(금) 1R (07:56-07:58) (재) - 시각장애인이자,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이다. 해당 방송에는 주로 건설노동자, 택배노동자 같은 직업군이 출연한다. 그런데 공영방송에서 이들의 목소리를 ‘낮은 목소리’라고 표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삶의 현장의 목소리’, ‘건강한 일터의 목소리’ 등 얼마든지 좋은 표현이 많다. 고려해주시기 바란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